

알고 가면 더 재밌다 → 흥미진진한 세계 도시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하마터면 지리도 모르고 세계여행 할 뻔했다

강이석 지음

다음은 어디일까.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화산섬이며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서구 사회에 알려졌다. 물론 이전에는 원주민인 폴리네시아인이 거주했다. 이곳에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알로하' (aloha)라고 인사한다. '사랑·평화·자비' 등 긍정적인 상황에서 거의 다 통용되는 용어다. 이곳은 미국의 대표 휴양지다. 그렇다. 바로 하와이다.

그렇다면 하와이의 대표 도시는 어디일까. 신혼여행을 갔거나 휴가나 관광을 갔던 이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들도 한번쯤 들어봤을 것인데, 바로 호놀룰루다.

호놀룰루의 관광지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곳들이 있다. 와이키키 해변, 거대한 분화구가 있는 사회산 다이아몬드헤드 그리고 진주만이 그곳이다. 특히 서쪽에 자리한 진주만은 과거 주민들이 진주를 많이 채취해 불어지른 이름이다. 이름처럼 아름다운 이곳은 역사적으로도 전쟁의 상흔이 깃들어 있었다. 지난 1941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후 미국이 잠전했으며 결국 일본은 항복하기에 이른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행하면 자연 경관을 떠올린다. 특정 랜드마크나 이색적인 음식을 많이 기억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지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고 문화를 경험하는 여행은 많지 않다. 그것의 중심에는 공통적으로 도시가 있다.

'최저선' (최선을 다하는 지리선 생남 모임) 화장인 강이석 지리교사는 여행을 가면 도시의 개성과 매력을 경험한다. '여행이 부르는 노래'를 발간했으며 월간지 '새교육'에 여행 칼럼을 연재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펴낸 '하마터면 지리도 모르고 세계여행 할 뻔했다'는 직접 다녀온 이가 들려주는 낭만 가득한 인문지리 여행기다.

언급한 호놀룰루에는 초밥집, 라멘집이 많다. 하와이가 미국에 편입되기 이전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된 때문이다. 넓은 농장에서 일할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고 많은 일본인들이 생계를 위해 이주를 했던 것이다.

티베트는 중국에 속해 있지만 지속적으로 독립을 요구하는 지역이다. 중심 도시 라싸는 중국 내 '뜨거운 감자'다. 티베트 자치구는 우리나라 12배에 달할 만큼 광활하다. 대부분 고원 지형에 거주민은 적지만, 중국 입장에서 요충지다. 인도와 국경을 접하는 곳인데다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돼 있다. 티베트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청나라 때이며 그 전에는 토번왕국으로 불렸다. 이후 청나라 멸망 후 중국공산당 정부가 1950년 영토권을 주장해 군대를 주둔시켰다.

저자에 따르면 티베트의 심장이 라싸라면 라싸의 심장은 '포탈라궁'이다. 역대 달라리 라마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티베트인들은 일생 한 번은 라싸 순례를 염원한다. 거리 모습은 중국 주요 도시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티베

트인들의 마음에는 전통에 대한 향수가 드리워져 있다.

'북방의 아테네'로 불리는 도시가 있다. 영국의 런던 다음으로 유명한 에든버러가 그곳이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가 연합해 결성한 나라로 에든버러는 스코틀랜드의 중심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은 '세상 어디에도 에든버러만한 곳은 없다'고 할 만큼 특색있는 문화가 꽃을 피웠다. 매년 8월 국제 페스티벌과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리는 이 도시는 300년 넘게 '영국'이라는 경계 안에 있었지만 스코틀랜드 심장이라는 자부심이 깃들여 있다.

이밖에 책에는 맥주와 축구 그리고 자동차로 유명한 독일의 뮌헨을 비롯해 지중해와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니스, 스타벅스와 아마존이 싹튼 미국의 시애틀, 유럽 중심의 터줏대감으로 일컫는 체코의 프라하 등이 소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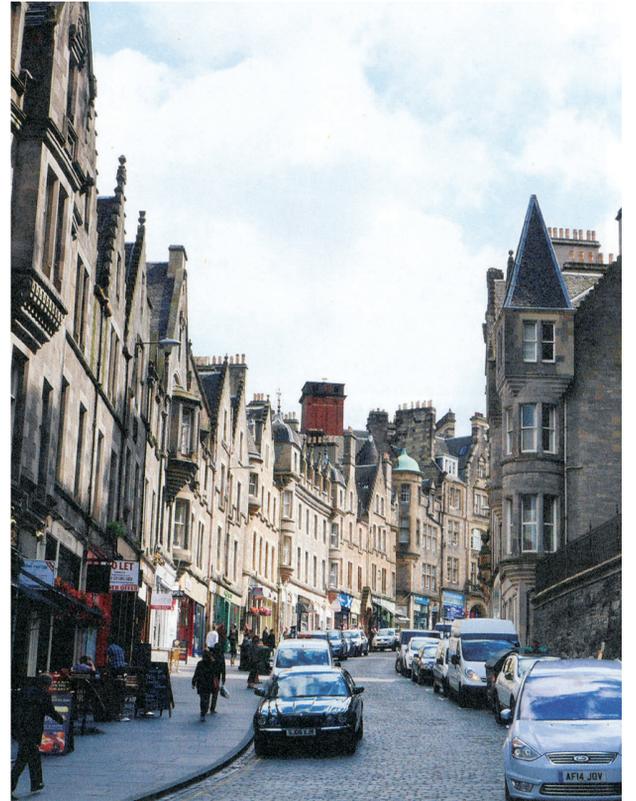
저자는 "여행에 정답이란 없어요"라면서 "세계의 어떤 곳에서 어떤 여행을 하든 그 도시에 대해 제대로 알고 떠난다면 훨씬 더 풍요로운 여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라고 말한다.

<북트리거> 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 건축물 '카사 밀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구시가지에는 1.8km의 돌길인 로열마일이 있다.

요즘 교사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조벽 지음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 교육이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본다.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는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학생들은 줄 세우기 입시로 인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의 교육 리더십을 전파해 온 조벽 고려대 석좌교수는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에 희망이 있다고 진단한다. 교사들의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이기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토대로 교육의 방향을 바꾸면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교육열은 마음만 바꾸면 교육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전제한다.

HD행복연구소 공동소장이기도 한 조벽 교수가 펴낸 '요즘 교사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사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멘토링이다. 그동안 저자는 40여 년간 국내외 교육현장을 경험했으며 많은 교육정책가, 교사, 학부모 등을 만나며 교육 리더십을 연구, 실천해왔다.

조 교수는 책에서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제안한다. 교사 외에도 학부모를 교육자로 선정한다. "훈육과 교육과 양육이 서로 다른 면이 있어도 선을 그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런 연유다. 학부모와 교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책은 아이들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을 비롯해 상담사와 코치들에게도 도움이 될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의 힘을 회복하기, 희망을 선택하기, 다시 연결하기 등은 그러한 부분이다. 또한 학생인권, 교권의 중요성, 교사들의 역할 전환, 이성과 감성이 연결된 능력인 마음지능을 높이기 등의 방안들도 참고할 만하다.



조벽 교수의 '요즘 교사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해냄> 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엇이 나를 살아 있게 만드는가

코리 키스 지음, 장혜인 옮김

"우울증도 번아웃도 아닙니다. 시들해진 겁니다."

이보다 더 마음에 와 닿는 표현이 있을까. 마음속 감정의 변화를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한 문장에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 '이런 기분을 갖는 사람이 나 뿐만이 아니구나' 하는 동질감에서다.

사회학자이자 에모리대학교 교수인 코리 키스가 쓴 '무엇이 나를 살아 있게 만드는가'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세상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삶을 위한 안내서다.

저자는 오랫동안 '시들함 (정신적 쇠약함)'의 영향과 좋은 정신건강(활력)의 조건을 연구하는데 주력해 온 긍정심리학 운동의 선구자이다. 선구적인 연구를 통해 '시들함 (languishing)'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고 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삶'의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1부 '시들함에서 활력으로: 정신건강은 연속체이다'에서는 시들함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시들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2부에서는 삶을 다시 활력 있게 바꿀 수 있는 '인생의 기둥'이 되는 다섯 가지 활력비타민'을 제시한다. 시들함의 강력한 해독제인 '배움', 활력의 전제조건이 되는 '관계(우정)', 언제라도 평온과 유연함을 되찾을 수 있는 '영성', 타인과 세상에 기여하면서 명확해지는 '목적', 비체계적인 즐거움인 '놀이'이다.

"활력 있는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을 도왔다. 더 많은 놀이와 능동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했고 더 많은 영성 또는 종교 활동에 참여했다.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배웠다. 그리고 따뜻함, 신뢰, 소속감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활동을 더 많이 했다."



코리 키스의 '무엇이 나를 살아 있게 만드는가'.

<더퀘스트> 2만1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브랜드의 거짓말

마틴 린드스트롬 지음, 박세연 옮김

'균중심리', '레트로', '섹스어필', '도파민', '공포', '희망' 그리고 '인플루언서'와 '데이터마이닝'.

시대를 불문하고 소비자 마음을 때려잡은 브랜드 키워드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을 모방하는 균중심리부터 뇌화학 작용에 기반한 도파민 형 소비까지...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절묘한 브랜드의 기만술을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3대 광고 에이전시(BBDO 인터랙티브 유럽아시아)를 설립한 마케팅 권위자 마틴 린드스트롬이 브랜드 마케팅 현실을 한 권 책으로 엮었다. '브랜드의 거짓말'은 40여 년 전에 비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브랜드의 교묘한 소비자 현혹법을 적나라하게 분석한다.

발간에 얽힌 저자의 에피소드가 먼저 이목을 끈다. 초판 출간 당시 린드스트롬은 '브랜드 디톡스'를 선언하며 1년간 어떤 브랜드 제품도 구매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으나, 6개월 만에 브랜드 티셔츠를 구매하며 실패했던 일화가 바로 그것.

마케팅 업계에서 40년 관록을 자랑하는 전문가 또한 브랜드의 현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기증명은, 독자들에게 현명한 소비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저자는 우리가 '브랜드를 사랑하도록 태어났다'며 그 증거로 9가지 키워드를 제시한다. 3000여 개 브랜드 사이에서 살아남는 승자들의 비결을 베스트셀러 전략,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산 예비양의 실패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책은 소비 환상을 자극하는 SNS 중심 인플루언서 소비도 지적한다. 나아가 영국 왕실 또한 '고급 브랜드' 다음 아니며, 이러한 간교를 간파하는 소비자 안목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마틴 린드스트롬의 '브랜드의 거짓말'.

<리더스북> 1만90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